



세계권역별 방한 외래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 방한 외래관광객 누적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South Korea by Region of the World: Focusing on the Cumulative Statistical Data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South Korea

황 경 호** · 윤 아 영*** · 정 남 호**** · 구 철 모*****

Hwang, Kyung-Ho · Yoon, Ah-Young · Chung, Nam-Ho · Koo, Chul-Mo

요 약 : 본 연구는 지난 14년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외래관광객 연령대, 방한 목적, 수송수단의 특성을 외래관광객의 거주 국가를 기준으로 분류한 세계권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된 외래관광객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집된 분석대상은 누적 외래관광객 15,427,051명이었다. 방한 외래관광객의 거주 국가를 기준으로 분류한 15개 세계권역별 외래관광객 연령대, 방한 목적, 수송수단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방한 목적별, 수송수단별로 세계권역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세계권역별 방한 외래관광객의 연령대, 방한 목적, 수송수단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대응일치분석을 병행하였다. 대응일치분석 결과, 세계권역별 연령대, 방한 목적, 수송수단 간의 공간적 위치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데이터에 의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방한 외래관광객의 경험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토대로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핵심어 : 외래관광객, 방한실태, 관광정책, 관광마케팅, 한국관광공사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including age, purpose of visit, and means of transportation according to the global region these tourists are from. This study used statistical data gathered from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2003 to 2016 as surveyed by the Korean Tourism Organization. The total cumulative number of foreign tourists was 15,427,051. The result of Chi-square analysis show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purpose of visit and means of transportation according to the global region of foreign tourists. In addition, we used correspondence analysis to visually examine the analysis results. This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patial location related to the age, purpose of visit and means of transportation depending on the global region the foreign tourists hailed from. The current study presents theoretical and practical suggestions to revitalize tourist attractions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5146).

**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e-mail: kyungho3506@naver.com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연구교수. e-mail: yayhm@khu.ac.kr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 e-mail: nhchung@khu.ac.kr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부교수(교신저자). e-mail: helmetgu@khu.ac.kr

for Foreigners by statisticall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Key words : Foreign tourists, Inbound condition, Tourism policy, Tourism marketing, Korea Tourism Organization

I. 서론

세계관광기구(UNWTO) 발표에 따르면, 국제관광객 수(international tourism arrival)는 2012년 최초로 10억 명을 돌파한 이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 11억 8,600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관광수입은 1조 2,6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NWTO, 2016). 이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관광객 수는 2015년 2억 7,900만 명으로 전체의 약 24%를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일본은 전년 대비 47.1% 증가한 19,737천 명, 중국은 4.1% 증가한 1억 3,382만 명으로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관광객 수의 절반 이상(약 5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외래관광객 수는 2015년 13,232천 명으로 전년대비 6.8% 감소하였고, 관광수입 역시 15.7% 감소한 19,126백만 달러를 기록했다.¹⁾ 2015년 1~5월까지 전년대비 10.7%의 증가율을 보이던 외래관광객 수가 6월 41%, 7월 53.5%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5월 발생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인해 관광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이 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17,241천 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며 전년대비 약 30%의 성장률을 보였다.²⁾ 하지만 최근 이웃 국가인 일본의 급속한 인바운드(inbound) 시장 성장률과 아시아권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고려한다면 향후 국내 인바운드 시장의 수요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외래관광객의 현황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관광관련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관광정보데이터(예: 관광정보지식시스템)는 경쟁국 및 주변국의 관광수지, 국제관광시장 내 자국의 현 위치 등 세계 관광시장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자료는 국제관광지표 뿐 아니라, 외래관광객의 출입국통계 및 관광객실태 조사 등 보다 세분화된 자료를 제공한다. 방안 외래관광객 통계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 중 매년 집계되는 국적별 입국자 수, 관광수입, 1인당 평균소비액, 성장률 등은 연도별 방안 외래객의 변화추이 및 수요예측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신범철, 2013; 이정아, 2004; Kim & Song, 1998).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자료를 토대로 방안 목적, 방문횟수, 체류기간, 숙박형태, 교통수단, 쇼핑, 여행정보습득경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 시장세분화 및 표적시장 별 마케팅전략 수립 등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재원·윤자연, 2012; 김홍식·이정섭·김영래, 2012; 이재곤·김정아·박민희, 2016; 임철수·고동우, 2015; Lyu & Noh, In press). 하지만 이들 연구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자료가 편의표본추출에 의한 설문조사 기반의 양적자료임을 고려할 때, 연구 결과를

1)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5년 국가별 관광통계. <https://know.tour.go.kr/stat/statMain.do>

2)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6년 입국관광통계. <https://know.tour.go.kr/stat/tourStatSearchDis.do>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와 같이 방한 외래관광객에 관한 조사는 정부기관 및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바운드 시장의 조사대상이 주로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 그 외 국가를 대상으로 한 외래관광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국내 인바운드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이 전체의 약 60%³⁾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과 일본 관광객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변화하는 관광시장의 환경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관광시장(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확대와 항공노선의 다양화, 크루즈 여행을 비롯한 해양관광의 발달 등은 향후 방한 외래객의 국적 분포 및 수송수단의 이용률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박수진·홍장원, 2012; Mariani, Buhalis, Longhi & Vitouladiti, 2014).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방한 외래 관광객에 대한 폭 넓은 연구가 요구되며, 조사 대상을 아시아권에서 전 세계 권역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방한 외래관광객에 관한 문헌조사를 토대로 국내 인바운드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래관광객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의 주요 조사방법 및 연구동향을 검토하여 이론적 체계를 구축한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도별 누적 관광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방한 외래관광객의 국적, 연령, 수송수단, 방문목적 등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변수의 범주 간 위치화(mapping) 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방한 외래관광객의 국적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관광행태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 확

대 차원의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방한 외래관광객 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공사는 매달 방한 외래관광객의 입국자 수, 통계월보, 크루즈 통계 등을 집계한 '한국관광시장동향'을 발간하고 있다. 2015년 '한국관광통계' 자료에 따르면,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2011년(979만 명)부터 2014년(1,420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5년 메르스 여파로(6월~8월 중 40% 감소) 전년도 대비 6.8% 감소한 1,323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2015년 대륙별 방한 외래관광객 분포를 보면 아시아주가 전체의 82.9%(1,907만 명)로 가장 많았으나, 성장률은 전년 대비 7.6% 감소하였고 특히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 밖에도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 자료는 방한 외래관광객의 성별, 연령별, 교통수단별 추이에 따른 외래관광객 집계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적별, 권역별로 세분화된 분석 자료는 제공되지 않아 지표에 따른 국가별 외래관광객의 특성 및 관광행태 등의 차이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깃 국가별 정교한 시장세분화 및 마케팅 방안을 도출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한국관광공사 이외 학계에서도 방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광객 수요, 체류기간, 지출 결정요인 분석, 관광패턴 분석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량적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박상곤·김상태·한숙영, 2010; 오현주·김상혁, 2012;

3) 2016년 방한 외래관광객에서 중국이 8,067,722(46.8%), 일본이 2,297,893(13.3%)으로 각각 1, 2위를 차지함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이재곤 외, 2016; 허식·지은초, 2012; Lyu & Noh, In press). 이 중 방한 외래관광객의 체류기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박상곤 외, 2010)는 단기체류와 장기체류 집단 간 방한 체류기간의 결정요인의 유의성과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방문동기 중 저비용과 단거리 요인은 장기체류집단의 체류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방문목적과 관련하여 단기체류집단은 순수관광목적(여가, 휴가)이 기타 목적(건강, 종교, 기타 등) 보다 체류기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방문목적 또한 체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임을 시사하였다. 이 밖에도 Lyu and Noh(In press)는 방한 외래관광객의 방문목적 중 쇼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음을 고려해 방한 외래관광객 9,636명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쇼핑패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을수록 쇼핑을 덜 하며, 여성 중 학력이 높을수록 쇼핑활동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과 나이, 교육수준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관광객 당 총 관광 지출액이 많을수록 쇼핑을 더 많이 하며, 단체관광객이 개별관광객과 비교해 쇼핑참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품목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산품 구매 지출은 남성이 여성 보다 많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판매하는 남대문이나 동대문 등 전통시장을 방문한 관광객이 시내나 공항면세점을 방문한 관광객 보다 쇼핑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등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관광객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과 방한 외래관광객의 쇼핑경험의 질 향상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Lyu & Noh, In press).

특히 국가별 방한 외래관광객 조사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은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김재원·윤자연, 2012; 김홍식 외, 2012; 박세중, 2011, 이재곤 외,

2016). 그 중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관광행태를 분석한 김재원·윤자연(2012)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은 타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방문율, 짧은 체류기간, 적은 관광지출 등의 특징을 보였고, 방문목적 또한 순수관광 이외에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소득 등)과 관련하여 중국 관광객은 동남아시아 관광객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 관광행태(방한목적, 체류기간, 방문횟수)는 일본관광객의 관광행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내 인바운드 시장에서 중국 관광객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의 외교적 문제가 관광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 일본 내 반한감정의 확산과 외교문제, 환율변동에 따른 경제적 문제 등으로 방한 일본관광객은 200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박소연·이근희·이인혜, 2015; 이병찬, 2013). 실제로 국내 관광 인바운드 시장은 과거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중동국가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강규상, 2012). 이처럼 유럽과 중동권 국가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방한 외래관광객에 관한 조사범위는 아시아권에서 전체 권역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보 집약적 성격이 강한 관광시장의 특성 상, 외래관광객의 정보습득 원천 및 수집경로에 관한 연구들도 다수 발표되었다(박나희·김홍범, 2016; 이재곤 외, 2016). 관광정보지식시스템의 '201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중국 개별관광객의 여행정보원천과 소비 지출액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 보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 개별여행객의 소비 지

출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여행정보원천 중 전체의 약 46.5%가 인터넷을 통해 여행정보를 습득하는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재곤 외, 2016).

이 밖에도 방한 외래관광객에 관한 연구들은 정량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분석결과에 따른 향후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및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권태일·노선희(2014)는 외래관광객 주요시장에 따른 숙박시설 공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관광행태와 관련해서 개별여행객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 단체여행객에게는 비즈니스급 중저가 호텔 공급, 비즈니스 여행객을 위한 특급호텔 확충이 요구되며, 국가별로 일본관광객 대상으로는 현재 비즈니스 호텔의 공급량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관광객을 고려할 시 중저가 숙박시설을 소폭 확충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 외래관광객 조사방법 및 연구동향

외래관광객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외래관광객의 사회·인구통계학적(socio-demographic) 특성과 관광행태에 따른 인바운드 관광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Cai, Lehto & O'Leary, 2001; Hsieh, Lang & O'Leary, 1997; Jang, Bai, Hong & O'Leary, 2004; Laesser & Crouch, 2006).

호주 인바운드 관광객의 국적별 일반적인 관광특성과 관광지출규모에 따른 시장세분화를 다룬 Laesser and Crouch(2006)의 연구를 보면, 호주 인바운드 관광의 성숙시장(mature market)으로 분류되는 유럽 국가(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등)의 관광객 평균지출액은 상대적으로 덜 성숙한 시장(less mature market)에 속하는 아시아 주요 국가(중국, 일

본, 대만, 한국 등)의 관광객 보다 20~30% 정도 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목적과 관련해서는 회의참석을 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척 및 친지 방문목적의 관광객은 평균 보다 5~10% 적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문목적과 지출액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외래관광객의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광행태를 다룬 관련연구 중 Cai *et al.*(2001)의 연구는 방문목적에 따라 순수 비즈니스, 비즈니스 및 레저, 순수 레저 목적의 3그룹으로 나누어 관광활동 및 관광패턴의 특징과 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공권예매 시 순수 레저 목적의 관광객은 다른 두 그룹과 비교해 항공권예약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고, 여행정보습득경로에서도 순수레저 목적의 관광객은 주변인의 구전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반면 다른 두 그룹은 관광관련 정부조직 및 기관, 여행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은 순수레저 목적의 관광객이 다른 두 집단 보다 더 길게 나타났고, 쇼핑 및 관광명소 등 관광활동과 관련해서도 순수레저 목적 관광객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에 따라 방문목적과 관광행태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세계 주요 관광목적지국가들이 중국을 타깃 시장으로 하여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Cai *et al.*(2001)의 연구는 중국시장의 세분화전략 뿐 아니라 관광상품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Jang *et al.*(2004)의 연구는 레저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일본관광객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적인 관광특성에 따른 관광객의 여행지출 패턴을 파악하였다. 소득수준과 관광객의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관광객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총 여행경비 중 숙박과 선물(기념품)에 가장 많은 부분을 지출하는

반면, 음식과 엔터테인먼트의 지출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총 경비의 약 10%)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에서는 전문직, 자영업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무직의 경우 소득이 많은 집단일수록 여행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체류기간 및 방문횟수에 따른 차이가 검증되었는데, 체류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재방문 보다는 처음 방문일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외래관광객 수요예측 및 조사기법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었다(신범철, 2013, 홍미영·임은순·김순하, 2011; Kim & Song, 1998; Koc & Altinay, 2007; Lim & McAleer, 2001). 시계열분석과 관련하여 Lim and McAleer(2001)는 호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의 월별 시계열데이터를 활용해 계절성(seasonality)을 분석하고자 이동평균분석

〈표 1〉 외래관광객 '방문목적'에 관한 국내외 주요 연구

| 저자 | 이론 및 분석 방법 | 주요 시사점 |
|-----------------------------|--|--|
| 박상곤 외 (2010) | 인구사회특성과 여행행태에 따른 외래관광객 체류기간 결정요인 분석 여행행태: 방문목적, 숙박형태, 방문시기 등 2차 자료 활용, 유한 혼합모형(finite mixture model) 적용 | 방문목적과 관련하여 단기체류집단의 경우 여가, 휴가 목적이 기타(종교 또는 치료) 목적 보다 체류기간이 길게 나타났으나, 장기체류집단의 경우 기타 목적이 여가, 휴가 목적 보다 약 2배 더 길게 나타남 |
| 이유안·김인신 (2016) | 관광객 집단에 따른 주요 관광지간의 연관성 규칙 분석을 통한 외래관광객 이동 패턴 및 관광지 간 관계성 파악 방문목적: 휴가·레저, 비즈니스의 2집단으로 구분 2차 자료활용, 연관성 분석 마이닝 기법 적용 | 방문목적에 따른 관광지 이동패턴에서 집단 간 대조적 결과 도출됨 휴가·레저 목적 관광객 중 고궁, 남대문시장, 박물관 방문한 경우 공통적으로 남산N타워 방문 경향 높게 나타남 반면, 비즈니스 목적 관광객 중 고궁, 이태원 방문한 경우 인사동 방문 경향 높게 나타남 |
| Cai et al. (2001) | 방문목적에 따른 사전여행준비, 관광활동 및 특성의 차이 방문목적: 순수 비즈니스, 비즈니스 및 레저, 순수 레저의 3집단으로 구분 2차 자료 활용, 카이제곱(chi-square) 검정 및 ANOVA 적용 | 순수레저목적 관광객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항공권 구매에 더 많은 시간 소요함 순수레저목적 관광객은 구전에 의한 정보수집 비율이 높은 반면, 다른 두 집단은 관광정보관련 조직 및 기관 통한 정보 습득률이 높게 나타남 순수레저목적 관광객의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체류기간 길며, 지출액 규모와 관련해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없음 |
| Laesser & Crouch (2006) | 가계생산이론(household production theory)과 쾌락적 접근에 의한 여행상품의 효용측정과 지출패턴 분석 2차 자료 활용, 로그선형회귀분석(log linear regression) 적용 | 방문 목적 중 회의참석 목적의 방문객 평균지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즈니스 목적 또한 비교적 높게 나타남. 친구 및 친지 목적 방문객의 평균지출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 Yoo, McKercher & Mena(2004) | 문화유형론(cultural typology theory)에 근거한 외래관광객의 여행행태 차이 분석 문화적, 물리적 거리: 동양(중국 관광객) vs. 서양(미국 관광객) 여행행태: 신규/재방문, 단일/복수국가 방문, 방문목적, 동반자수, 체류기간, 총지출액 등 2차 자료 활용,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적용 | 홍콩을 방문한 중국관광객과 미국관광객 간의 여행행태 차이 검증됨 방문목적 및 재방문여부: 중국관광객은 비즈니스 목적의 재방문 관광객이 많은 반면, 미국관광객은 대다수가 레저 목적의 신규관광객으로 나타남 총 여행국가: 중국관광객은 홍콩을 단일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많으나, 미국관광객은 주변 다른 국가들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moving average technique)을 적용하였다. 터키 인바운드 관광객의 여행 지출액 데이터를 활용한 시계열분석 연구(Koc & Altinay, 2007)에서는 관광객 1인당 여행 지출액의 계절성 패턴은 외래관광객 입국자 수 및 관광수입의 계절성 패턴과 상당히 다르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데이터 분석결과 추정된 계절성 요인은 외래관광객의 국적별, 월별 여행 지출액 규모에 따른 외래관광객 시장세분화 및 마케팅 믹스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Kim and Song(1998)의 연구는 공적분검정 및 오차수정 모형(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approach)을 사용하여 주요 4개국(일본, 미국, 영국, 독일)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과 영국 관광객에게 여행경비 요소는 한국 여행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일본과 독일 관광객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수요모형에서 대체가격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체목적지국가(substitute destinations)로 말레이시아와 중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완목적지국가(complementary destinations)로는 싱가포르와 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들어 관광분야에서는 외래관광객 조사방법과 관련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마이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연관성 규칙 마이

닝 기법, 클러스터링 기법, 의사결정트리모델, 네트워크 분석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김민정, 2001; 김영래·구본기, 2012; 김완섭·강미라·류시영, 2010; 박득희·이계희·김혜선, 2015; 이유안·김인신, 2016). 이유안·김인신(2016)은 연관성 규칙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외래관광객을 휴가 및 레저 관광객과 비즈니스관광객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 별 관광이동행태 및 관광지 선택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휴가 및 레저관광객 집단의 경우 고궁, 남대문시장, 박물관을 방문한 관광객은 공통적으로 남산N서울타워를 방문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비즈니스관광객 집단은 고궁과 이태원을 방문한 관광객이 인사동을 방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방한 중국관광객을 개별관광객과 단체관광객으로 구분하여 관광객이 방문한 목적지들 간의 패턴 및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단체관광객은 고궁, 개별관광객은 동대문시장이 각각 관광목적지 네트워크 내 핵심플레이어(key player)로 나타났으며, 이 두 곳의 목적지는 연결정도 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높게 나타나 핵심관광지임이 재확인되었다(박득희 외, 2015) 선형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방한 외래관광객에 관한 조사는 주로 2차 자료를 활용한 정량적 연구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범주

| 변수 | 범주 |
|----------|---|
| 세계권역(15) |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동유럽,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중부유럽, 남아프리카 |
| 연령대(6) |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
| 방한목적(4) | 여행, 사업, 공무, 기타 |
| 수송수단(9) |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기타 공항(청주공항, 대구공항, 양양공항 등), 부산항만, 인천항만, 제주항만, 기타 항만(울산항, 군산항, 속초항 등) |

주: 괄호 안은 주요 변수별 범주의 수를 나타냄.

하지만 장기간 축적된 외래관광객의 누적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조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방한 외래관광객 조사 대부분이 단일 국가 또는 동남아시아권의 국가 대상으로 이루어져 외래관광객 분석에 대한 국가별 종합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 동안 축적된 방한 외래관광객의 통계 자료를 토대로 외래관광객 거주 국가별 연령대, 방문 목적, 수송수단의 특성을 조사하고, 각 특성에 따른 외래관광객의 분포도를 분석하여 국가별 또는 권역별 방한 외래관광객 특성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세계권역(총 15개 권역)으로 구분해 볼 때, 방한 외래관광객의 연령은 권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세계권역(총 15개 권역)으로 구분해 볼 때, 방한 외래관광객의 방한 목적은 권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세계권역(총 15개 권역)으로 구분해 볼 때, 방한 외래관광객의 수송수단은 권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지난 14년 간 한국관광공사(Korea Tourism Organization)에서 조사된 외래관광객 누적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⁴⁾ 한국관광공사는 2003년부터 외래관광객의 성별, 연령별, 수송수단별 추이에 따른 외래관광객 집계 현황을 월 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된 통계 자료는 외래관광객의 특성 및 관광행태 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됨으로써 정책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집된 분석대상은 200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4년 동안 한국을 방문한 누적 외래관광객 15,427,051명⁵⁾이며, 외래관광객의 거주국가, 연령, 방한 시 수송수단 등을 기준으로 '세계권역', '연령대', '방한목적', '수송수단' 등 4개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범주의 수가 많은 범주형 변수는 통계적 분석 기법에 이용될 때 데이터 차원을 크게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는 유사한 범주들을 하나로 함침으로써 범주의 개수를 축소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52개에 달하는 외래관광객의 거주 국가를 지리적, 문화적 특성에 기반 하여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등 15가지 '세계권역'으로 축소·분류하였다.⁶⁾ 다음으로 '연령대', '방한목적', '수송수단'은 한국관광공사의 외래관광객 통계조사항목을 참조하여 '연령대'는 20세 이하, 21~30세, 31~

4) 수집된 자료는 한국관광공사의 영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한 외래관광객 통계자료이며, 다음의 웹사이트 주소를 통해 이용가능하다(<https://kto.visitkorea.or.kr/eng/tourismStatics/keyFacts/KoreaMonthlyStatistics.kto>).

5) 총 15,898,425명의 외래관광객이 집계되었으나 거주국가가 확인되지 않은 630명, 기타 국가로 분류되는 216,971명, 재외동포 253,773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5,427,051명의 외래관광객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외래관광객의 연령대 조사과정에서 승무원의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여 외래관광객의 연령대별 범주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외래관광객의 연령대 분석에서는 앞서 산출된 최종분석대상 15,427,051명에서 총 15개 권역의 승무원 1,344,000명을 제외한 14,083,051명이 선정되었다.

6) 세계권역은 지리적, 문화적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예컨대, 유럽은 지리적, 문화적 기준에 따라 정의 및 범위가 조금씩

40세 등 6가지로, '방한목적'은 여행(tour), 사업(business), 공무(official) 등 4가지로, '수송수단'은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등 9가지로 각각 분류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두 범주형 변수 간에 서로 상관이 있는지 독립인지를 판단하는 통계적 검정방법인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두 범주형 변수의 범주 간 위치화(mapping)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최적화 척도법(optimal scaling)인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대응일치분석은 개체와 범주에 계량적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범주형 데이터를 수량화하는 분석기법이다. 또한, 범주에 계량적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두 명목형 변수 간의 관계를 다차원 공간에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쉽게 파악하도록 해준다. 범주를 기준으로 동일성이 높은 개체들을 부 그룹으로 나누며, 대응일치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변수가 명목형 변수이어야 한다. 한편, 대응일치분석의 목적은 각 범주들을 가능한 한 잘 분류해주는 최적의 수량화 점수를 찾아내는데 있다. 즉, 같은 범주에 속한 대상들이 도표 상에 위치하고, 다른 범주에 속한 대상들과는 가능한 한 멀리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대응일치분석의 목적이다(김영기·황경호·이기혁, 2014).

일반적으로 두 범주형 변수 간의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더라도, 카이제곱 검정으로는 변수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각 범주별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

기 위해 대응일치분석이 사용된다. 즉,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두 범주형 변수에 포함된 각 범주별 관측점들을 2차원 평면상의 지도(map)로 도식화함으로써 각각의 범주에 따른 차이를 명확히 살펴볼 수 있다(양승용·오민재, 2008).

IV. 연구결과

1. 세계권역별 방한 외래관광객의 연령대 차이 분석결과

〈연구문제 1〉은 세계권역별 방한 외래관광객의 연령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외래관광객의 거주 국가를 기준으로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등 총 15가지 권역으로, 연령대를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세계권역별로 어떤 연령대에 외래관광객이 더 많은 분포를 나타냈는지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방한 외래관광객의 거주 국가를 기준으로 분류된 세계권역에 따라 외래관광객의 연령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hi^2=216371.478$, $df=70$, $p=.000$). 구체적으로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메리카, 동유럽의 경우에는 연령대별 외래관광객의 기대빈도에 비해 31~40세 연령대의 외래관광객 관측빈도가 많이 나타났으며,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중부유럽의 경우에는 41~50세 연령대의 외래관광객 관측빈도가 많이 나타났다. 그 밖에도 동아시아와 남아프리카는 21~30세, 오세아니아와 북아메리카는 61세 이상, 중동은 20세 이하 연령대의 외래관광객이 기대빈도에 비해 관측빈도가 각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북부지역에 포함되며 노르딕(Nordic) 제국의 동의어를 사용하고 있으면 북유럽으로, 남부지역에 위치하면서 지중해에 접해 있으면 남유럽으로, 서유럽과 동유럽 사이에 위치하고 유럽 중부에 있는 독일 게르만족과 슬라브족 문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포함되면 중부유럽 등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표 3〉 세계권역별 방한 외래관광객의 연령대 차이 검정결과

(단위: 명)

| 구분 | 연령대 | | | | | | 합계 | |
|-------|---------|-----------|-----------|-----------|-----------|-----------|-----------|------------|
| | 20세 이하 | 21~30세 | 31~40세 | 41~50세 | 51~60세 | 61세 이상 | | |
| 동아시아 | 관측빈도(A) | 1,184,681 | 2,705,479 | 2,291,714 | 1,740,748 | 1,555,431 | 1,249,058 | 10,727,111 |
| | 기대빈도(B) | 1,171,761 | 2,659,086 | 2,328,769 | 1,779,233 | 1,571,948 | 1,216,314 | 10,727,111 |
| | A-B | 12,920 | 46,393 | -37,055 | -38,485 | -16,517 | 32,744 | 0 |
| 서아시아 | 관측빈도(A) | 1,918 | 6,141 | 9,374 | 6,923 | 4,630 | 4,339 | 33,325 |
| | 기대빈도(B) | 3,640 | 8,261 | 7,235 | 5,527 | 4,883 | 3,779 | 33,325 |
| | A-B | -1,722 | -2,120 | 2,139 | 1,396 | -253 | 560 | 0 |
| 남아시아 | 관측빈도(A) | 5,249 | 30,026 | 38,720 | 19,484 | 8,922 | 3,788 | 106,189 |
| | 기대빈도(B) | 11,599 | 26,323 | 23,053 | 17,613 | 15,561 | 12,040 | 106,189 |
| | A-B | -6,350 | 3,703 | 15,667 | 1,871 | -6,639 | -8,252 | 0 |
| 동남아시아 | 관측빈도(A) | 141,760 | 384,521 | 346,717 | 225,613 | 169,295 | 89,973 | 1,357,879 |
| | 기대빈도(B) | 148,326 | 336,597 | 294,785 | 225,222 | 198,983 | 153,966 | 1,357,879 |
| | A-B | -6,566 | 47,924 | 51,932 | 391 | -29,688 | -63,993 | 0 |
| 중앙아시아 | 관측빈도(A) | 7,785 | 28,799 | 26,140 | 14,332 | 8,190 | 4,206 | 89,452 |
| | 기대빈도(B) | 9,771 | 22,174 | 19,419 | 14,837 | 13,108 | 10,143 | 89,452 |
| | A-B | -1,986 | 6,625 | 6,721 | -505 | -4,918 | -5,937 | 0 |
| 중동 | 관측빈도(A) | 5,557 | 7,507 | 5,465 | 3,261 | 2,094 | 654 | 24,538 |
| | 기대빈도(B) | 2,680 | 6,083 | 5,327 | 4,070 | 3,596 | 2,782 | 24,538 |
| | A-B | 2,877 | 1,424 | 138 | -809 | -1,502 | -2,128 | 0 |
| 오세아니아 | 관측빈도(A) | 19,534 | 23,490 | 29,558 | 27,615 | 26,853 | 31,473 | 158,523 |
| | 기대빈도(B) | 17,316 | 39,295 | 34,414 | 26,293 | 23,230 | 17,974 | 158,523 |
| | A-B | 2,218 | -15,805 | -4,856 | 1,322 | 3,623 | 13,499 | 0 |
| 남아메리카 | 관측빈도(A) | 978 | 3,056 | 3,445 | 1,917 | 1,405 | 1,083 | 11,884 |
| | 기대빈도(B) | 1,298 | 2,946 | 2,580 | 1,971 | 1,741 | 1,347 | 11,884 |
| | A-B | -320 | 110 | 865 | -54 | -336 | -264 | 0 |
| 북아메리카 | 관측빈도(A) | 114,863 | 156,211 | 151,321 | 158,196 | 177,251 | 152,854 | 910,696 |
| | 기대빈도(B) | 99,479 | 225,748 | 197,705 | 151,051 | 133,453 | 103,261 | 910,696 |
| | A-B | 15,384 | -69,537 | -46,384 | 7,145 | 43,798 | 49,593 | 0 |
| 동유럽 | 관측빈도(A) | 20,132 | 43,389 | 44,144 | 32,117 | 23,171 | 10,306 | 173,259 |
| | 기대빈도(B) | 18,926 | 42,948 | 37,613 | 28,737 | 25,389 | 19,645 | 173,259 |
| | A-B | 1,206 | 441 | 6,531 | 3,380 | -2,218 | -9,339 | 0 |
| 서유럽 | 관측빈도(A) | 19,455 | 49,275 | 48,786 | 45,844 | 40,792 | 26,359 | 230,511 |
| | 기대빈도(B) | 25,180 | 57,140 | 50,042 | 38,233 | 33,779 | 26,137 | 230,511 |
| | A-B | -5,725 | -7,865 | -1,256 | 7,611 | 7,013 | 222 | 0 |
| 남유럽 | 관측빈도(A) | 3,692 | 14,584 | 21,586 | 18,827 | 12,011 | 5,145 | 75,845 |
| | 기대빈도(B) | 8,285 | 18,801 | 16,465 | 12,580 | 11,114 | 8,600 | 75,845 |
| | A-B | -4,593 | -4,217 | 5,121 | 6,247 | 897 | -3,455 | 0 |
| 북유럽 | 관측빈도(A) | 4,062 | 10,543 | 9,588 | 11,406 | 9,541 | 4,465 | 49,605 |
| | 기대빈도(B) | 5,419 | 12,296 | 10,769 | 8,228 | 7,269 | 5,625 | 49,605 |
| | A-B | -1,357 | -1,753 | -1,181 | 3,178 | 2,272 | -1,160 | 0 |
| 중부유럽 | 관측빈도(A) | 8,397 | 25,233 | 28,847 | 28,124 | 23,048 | 12,602 | 126,251 |
| | 기대빈도(B) | 13,791 | 31,296 | 27,408 | 20,940 | 18,501 | 14,315 | 126,251 |
| | A-B | -5,394 | -6,063 | 1,439 | 7,184 | 4,547 | -1,713 | 0 |
| 남아프리카 | 관측빈도(A) | 280 | 2,718 | 1,911 | 1,453 | 1,092 | 529 | 7,983 |
| | 기대빈도(B) | 872 | 1,979 | 1,733 | 1,324 | 1,170 | 905 | 7,983 |
| | A-B | -592 | 739 | 178 | 129 | -78 | -376 | 0 |
| 합계 | 관측빈도(A) | 1,538,343 | 3,490,972 | 3,057,316 | 2,335,860 | 2,063,726 | 1,596,834 | 14,083,051 |
| | 기대빈도(B) | 1,538,343 | 3,490,972 | 3,057,316 | 2,335,860 | 2,063,726 | 1,596,834 | 14,083,051 |
| | A-B | 0 | 0 | 0 | 0 | 0 | 0 | 0 |

주: $\chi^2(70) = 216371.478, p = .000.$

각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카이제곱 검정과 함께 세계권역별 방한 외래관광객의 연령대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다차원 공간에 도식화하였다. 방한 외래관광객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참조하여 분류한 세계권역과 연령대 특성별 위치화를 위한 대응일치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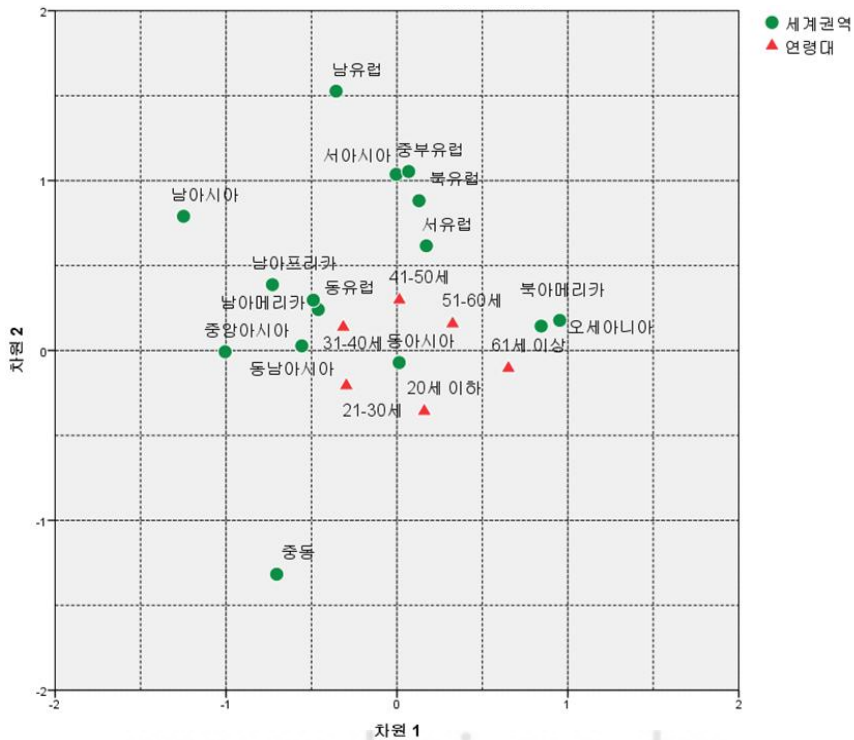
대응일치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료의 분산은 1차원에 의해 78.3% 설명되고, 2차원에 의해 15.1% 설명되었다. 두 개의 차원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총 비율은 93.4%로 나타났다. 세계권역과 연령대 변수 내 범주를 수량화하고 각 차원에 대한 세계권역과 연령대 범주의 좌표를 기준으로 한 결합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도표화하였다.

세계권역과 연령대 변수 내 범주 점의 결합 도

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권역 가운데 동유럽,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는 31~40세 연령대와 밀접한 거리를 나타냈으며, 서유럽은 41~50세, 북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는 61세 이상 연령대와 각각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나타냈다. 동아시아는 모든 연령대와 전반적으로 균등한 거리를 나타냈다. 한편, 세계권역 중 남유럽, 남아시아, 중동은 어떠한 연령대에도 밀접한 거리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는 남유럽, 남아시아, 중동과 연령대 변수 내 범주들 간의 유사성, 연관성, 상호작용 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2. 세계권역별 방한 외래관광객의 방한 목적 차이 분석결과

<연구문제 2>는 세계권역별로 방한 외래관광객의 방한 목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림 1> '세계권역'과 '연령대' 범주 점의 결합 도표

〈표 4〉 세계권역별 방한 외래관광객의 방한목적 차이 검정결과 (단위: 명)

| 구분 | | 방한목적 | | | | 합계 |
|-------|---------|------------|---------|---------|-----------|------------|
| | | 여행 | 사업 | 공무 | 기타 | |
| 동아시아 | 관측빈도(A) | 9,899,093 | 73,248 | 8,538 | 1,078,933 | 11,059,812 |
| | 기대빈도(B) | 9,108,593 | 117,504 | 31,391 | 1,802,324 | 11,059,812 |
| | A-B | 790,500 | -44,256 | -22,853 | -723,391 | 0 |
| 서아시아 | 관측빈도(A) | 27,135 | 3,362 | 622 | 14,213 | 45,332 |
| | 기대빈도(B) | 37,334 | 482 | 129 | 7,387 | 45,332 |
| | A-B | -10,199 | 2,880 | 493 | 6,826 | 0 |
| 남아시아 | 관측빈도(A) | 40,162 | 32,114 | 1,459 | 152,901 | 226,636 |
| | 기대빈도(B) | 186,652 | 2,408 | 643 | 36,933 | 226,636 |
| | A-B | -146,490 | 29,706 | 816 | 115,968 | 0 |
| 동남아시아 | 관측빈도(A) | 1,205,204 | 16,766 | 9,152 | 734,886 | 1,966,008 |
| | 기대빈도(B) | 1,619,157 | 20,888 | 5,580 | 320,384 | 1,966,008 |
| | A-B | -413,953 | -4,122 | 3,572 | 414,502 | 0 |
| 중앙아시아 | 관측빈도(A) | 51,856 | 3,812 | 55 | 38,777 | 94,500 |
| | 기대빈도(B) | 77,828 | 1,004 | 268 | 15,400 | 94,500 |
| | A-B | -25,972 | 2,808 | -213 | 23,377 | 0 |
| 중동 | 관측빈도(A) | 21,998 | 283 | 179 | 2,440 | 24,900 |
| | 기대빈도(B) | 20,507 | 265 | 71 | 4,058 | 24,900 |
| | A-B | 1,491 | 18 | 108 | -1,618 | 0 |
| 오세아니아 | 관측빈도(A) | 137,887 | 4,734 | 452 | 21,368 | 164,441 |
| | 기대빈도(B) | 135,430 | 1,747 | 467 | 26,798 | 164,441 |
| | A-B | 2,457 | 2,987 | -15 | -5,430 | 0 |
| 남아메리카 | 관측빈도(A) | 10,549 | 123 | 86 | 5,692 | 16,450 |
| | 기대빈도(B) | 13,548 | 175 | 47 | 2,681 | 16,450 |
| | A-B | -2,999 | -52 | 39 | 3,011 | 0 |
| 북아메리카 | 관측빈도(A) | 738,245 | 5,672 | 21,674 | 210,660 | 976,251 |
| | 기대빈도(B) | 804,017 | 10,372 | 2,771 | 159,091 | 976,251 |
| | A-B | -65,772 | -4,700 | 18,903 | 51,569 | 0 |
| 동유럽 | 관측빈도(A) | 149,146 | 2,622 | 277 | 90,667 | 242,712 |
| | 기대빈도(B) | 199,892 | 2,579 | 689 | 39,553 | 242,712 |
| | A-B | -50,746 | 43 | -412 | 51,114 | 0 |
| 서유럽 | 관측빈도(A) | 197,156 | 10,298 | 628 | 53,617 | 261,699 |
| | 기대빈도(B) | 215,529 | 2,780 | 743 | 42,647 | 261,699 |
| | A-B | -18,373 | 7,518 | -115 | 10,970 | 0 |
| 남유럽 | 관측빈도(A) | 69,004 | 2,053 | 251 | 65,241 | 136,549 |
| | 기대빈도(B) | 112,458 | 1,451 | 388 | 22,252 | 136,549 |
| | A-B | -43,454 | 602 | -137 | 42,989 | 0 |
| 북유럽 | 관측빈도(A) | 40,375 | 4,960 | 151 | 10,019 | 55,505 |
| | 기대빈도(B) | 45,713 | 590 | 158 | 9,045 | 55,505 |
| | A-B | -5,338 | 4,370 | -7 | 974 | 0 |
| 중부유럽 | 관측빈도(A) | 112,469 | 3,627 | 245 | 27,581 | 143,922 |
| | 기대빈도(B) | 118,531 | 1,529 | 408 | 23,454 | 143,922 |
| | A-B | -6,062 | 2,098 | -163 | 4,127 | 0 |
| 남아프리카 | 관측빈도(A) | 5,066 | 230 | 17 | 7,021 | 12,334 |
| | 기대빈도(B) | 10,158 | 131 | 35 | 2,010 | 12,334 |
| | A-B | -5,092 | 99 | -18 | 5,011 | 0 |
| 합계 | 관측빈도(A) | 12,705,345 | 163,904 | 43,786 | 2,514,016 | 15,427,051 |
| | 기대빈도(B) | 12,705,345 | 163,904 | 43,786 | 2,514,016 | 15,427,051 |
| | A-B | 0 | 0 | 0 | 0 | 0 |

주: $\chi^2(42) = 2385200.18, p =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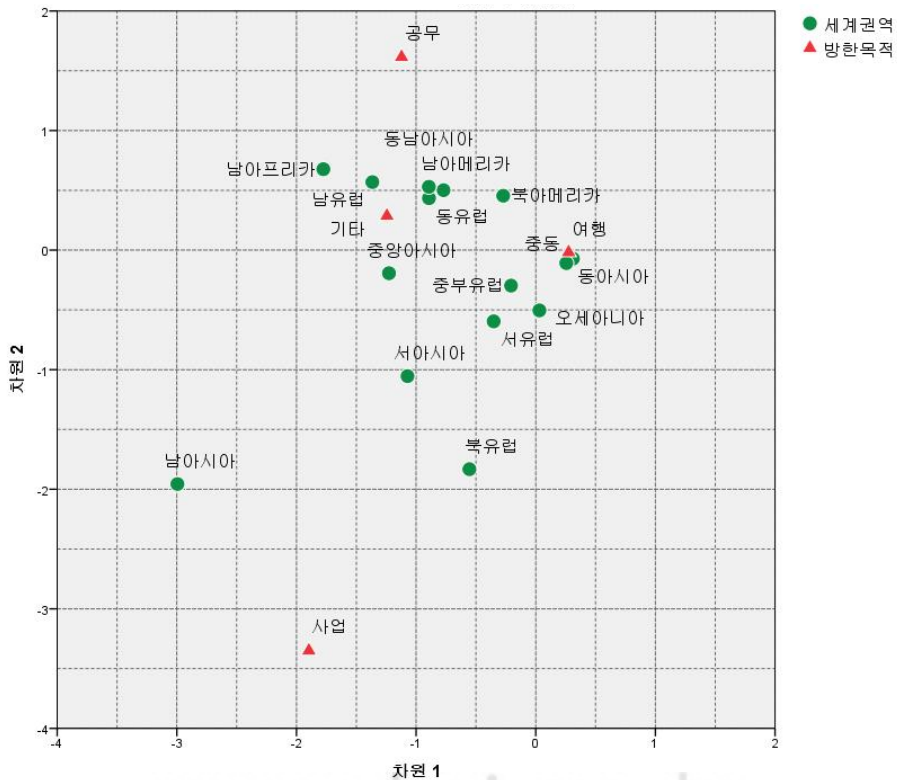
이를 위해 <연구문제 1>과 동일하게 세계권역을 총 15가지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방한 목적을 여행, 사업, 공무, 기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세계권역별로 어떤 목적 유형에 외래관광객이 더 많은 분포를 나타냈는지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방한 외래관광객의 거주 국가를 기준으로 분류된 세계권역에 따라 외래관광객의 방한 목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hi^2=2385200.18$, $df=42$, $p=.000$). 구체적으로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동유럽, 서유럽, 남유럽, 중부유럽, 남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방한 목적별 외래관광객의 기대빈도에 비해 건강, 뷰티, 종교 등의 기타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래관광객의 관측빈도가 많이 나타났으

며, 동아시아와 중동은 여행, 오세아니아와 북유럽은 사업을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래관광객이 기대빈도에 비해 관측빈도가 각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카이제곱 검정과 함께 세계권역별 방한 외래관광객의 방한 목적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다차원 공간에 도식화하였다. 방한 외래관광객의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관광행태를 참조하여 분류한 세계권역과 방한 목적 특성별 위치화를 위한 대응일치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응일치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료의 분산은 1차원에 의해 82.1% 설명되고, 2차원에 의해 12.7% 설명되었다. 두 개의 차원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총 비율은 94.8%로 나타났다. 세계권역과 방한 목적 변수 내 범주를 수량화하고



<그림 2> '세계권역'과 '방한 목적' 범주 점의 결합 도표

각 차원에 대한 세계권역과 방한 목적 범주의 좌표를 기준으로 한 결합 관계를 <그림 2>와 같이 도표화하였다.

세계권역과 방한 목적 변수 내 범주 점의 결합도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권역 가운데 중동과 동아시아는 여행과 밀접한 거리를 나타냈으며, 남유럽, 동유럽,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는 건강, 뷰티, 종교 등의 기타 목적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나타냈다. 한편, 방한 목적 중 공무와 사업은 어떠한 세계권역과도 밀접한 거리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는 공무, 사업과 세계권역 변수 내 범주들 간의 유사성, 연관성, 상호작용 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3. 세계권역별 방한 외래관광객의 수송수단 차이 분석결과

<연구문제 3>은 세계권역별로 방한 외래관광객의 수송수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와 동일하게 세계권역을 총 15가지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수송수단을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기타 공항, 부산항만, 인천항만, 제주항만, 기타 항만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세계권역별로 어떤 수송수단에 외래관광객이 더 많은 분포를 나타냈는지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방한 외래관광객의 거주 국가를 기준으로 분류된 세계권역에 따라 외래관광객의 수송수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hi^2=2014672.19$, $df=112$, $p=.000$). 구체적으로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서유럽, 북유럽, 중부유럽의 경우에는 수송수단별 외래관광객의 기대빈도에 비해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방한하는 외래관광객의 관측빈도가 많이 나타났다. 그 밖에도 남아시아와 남유

럽은 제주항만, 동아시아는 제주공항, 남아프리카는 부산항만, 동유럽은 울산항, 군산항, 속초항 등의 기타 항만을 이용하는 외래관광객이 기대빈도에 비해 관측빈도가 각각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카이제곱 검정과 함께 세계권역별 방한 외래관광객의 수송수단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다차원 공간에 도식화하였다. 방한 외래관광객의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관광행태를 참조하여 분류한 세계권역과 수송수단 특성별 위치화를 위한 대응일치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응일치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료의 분산은 1차원에 의해 55.9% 설명되고, 2차원에 의해 30.6% 설명되었다. 두 개의 차원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총 비율은 86.4%로 나타났다. 세계권역과 수송수단 변수 내 범주를 수량화하고 각 차원에 대한 세계권역과 수송수단 범주의 좌표를 기준으로 한 결합 관계를 <그림 3>과 같이 도표화하였다.

세계권역과 수송수단 변수 내 범주 점의 결합도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권역 가운데 남유럽은 부산항만과 밀접한 거리를 나타냈으며, 남아메리카는 인천공항, 동유럽과 남아시아는 울산항, 군산항, 속초항 등의 기타 항만과 각각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나타냈다. 동아시아는 기타 항만을 제외한 모든 수송수단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거리를 나타냈는데, 특히, 김해공항, 인천항만, 김포공항, 인천공항, 제주공항 등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북유럽, 오세아니아, 서유럽 등의 일부 권역들은 인천공항 주위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 동

〈표 5〉 세계권역별 방한 외래관광객의 수송수단 차이 검정결과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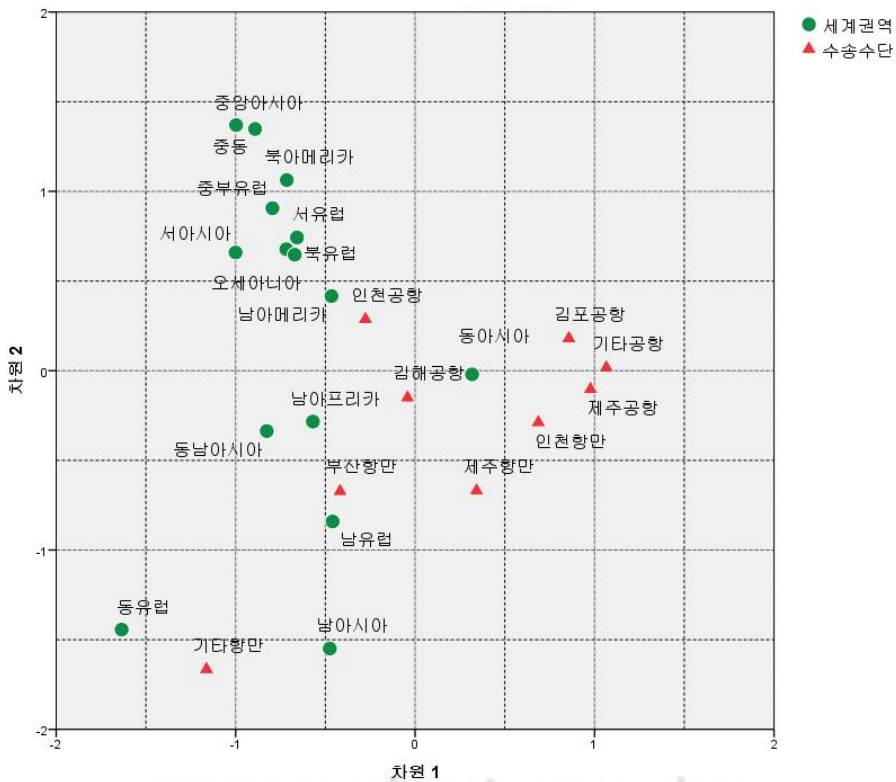
| 구분 | 수송수단 | | | | | | | | | 합계 | |
|-------|----------|-----------|----------|----------|-----------|----------|----------|----------|-----------|---------|------------|
| | 인천 공항 | 김해 공항 | 김포 공항 | 제주 공항 | 기타 공항 | 부산 항만 | 인천 항만 | 제주 항만 | 기타 항만 | | |
| 동아시아 | 관측빈도(A) | 5,656,692 | 664,006 | 848,765 | 1,179,707 | 382,679 | 470,024 | 498,422 | 1,122,800 | 236,717 | 11,059,812 |
| | 기대빈도(B) | 6,243,074 | 666,691 | 663,377 | 888,652 | 282,327 | 553,065 | 407,252 | 1,027,966 | 327,407 | 11,059,812 |
| | A-B | -586,382 | -2,685 | 185,388 | 291,055 | 100,352 | -83,041 | 91,170 | 94,834 | -90,690 | 0 |
| 서아시아 | 관측빈도(A) | 38,204 | 1,109 | 722 | 82 | 24 | 2,334 | 648 | 500 | 1,709 | 45,332 |
| | 기대빈도(B) | 25,589 | 2,733 | 2,719 | 3,642 | 1,157 | 2,267 | 1,669 | 4,213 | 1,342 | 45,332 |
| | A-B | 12,615 | -1,624 | -1,997 | -3,560 | -1,133 | 67 | -1,021 | -3,713 | 367 | 0 |
| 남아시아 | 관측빈도(A) | 91,340 | 8,576 | 1,562 | 720 | 142 | 36,514 | 9,638 | 62,375 | 15,769 | 226,636 |
| | 기대빈도(B) | 127,932 | 13,662 | 13,594 | 18,210 | 5,785 | 11,333 | 8,345 | 21,065 | 6,709 | 226,636 |
| | A-B | -36,592 | -5,086 | -12,032 | -17,490 | -5,643 | 25,181 | 1,293 | 41,310 | 9,060 | 0 |
| 동남아시아 | 관측빈도(A) | 1,256,390 | 137,573 | 6,090 | 41,479 | 935 | 163,098 | 39,958 | 186,987 | 133,498 | 1,966,008 |
| | 기대빈도(B) | 1,109,778 | 118,512 | 117,923 | 157,968 | 50,187 | 98,314 | 72,394 | 182,733 | 58,200 | 1,966,008 |
| | A-B | 146,612 | 19,061 | -111,833 | -116,489 | -49,252 | 64,784 | -32,436 | 4,254 | 75,298 | 0 |
| 중양아시아 | 관측빈도(A) | 92,084 | 1,896 | 179 | 24 | 66 | 66 | 3 | 73 | 109 | 94,500 |
| | 기대빈도(B) | 53,344 | 5,697 | 5,668 | 7,593 | 2,412 | 4,726 | 3,480 | 8,783 | 2,798 | 94,500 |
| | A-B | 38,740 | -3,801 | -5,489 | -7,569 | -2,346 | -4,660 | -3,477 | -8,710 | -2,689 | 0 |
| 중동 | 관측빈도(A) | 23,713 | 392 | 441 | 75 | 164 | 42 | 24 | 12 | 37 | 24,900 |
| | 기대빈도(B) | 14,056 | 1,501 | 1,494 | 2,001 | 636 | 1,245 | 917 | 2,314 | 737 | 24,900 |
| | A-B | 9,657 | -1,109 | -1,053 | -1,926 | -472 | -1,203 | -893 | -2,302 | -700 | 0 |
| 오세아니아 | 관측빈도(A) | 125,671 | 11,180 | 5,167 | 1,682 | 327 | 13,820 | 3,431 | 2,707 | 456 | 164,441 |
| | 기대빈도(B) | 92,824 | 9,913 | 9,863 | 13,213 | 4,198 | 8,223 | 6,055 | 15,284 | 4,868 | 164,441 |
| | A-B | 32,847 | 1,267 | -4,696 | -11,531 | -3,871 | 5,597 | -2,624 | -12,577 | -4,412 | 0 |
| 남아메리카 | 관측빈도(A) | 11,897 | 511 | 597 | 131 | 32 | 881 | 390 | 2,000 | 11 | 16,450 |
| | 기대빈도(B) | 9,286 | 992 | 987 | 1,322 | 420 | 823 | 606 | 1,529 | 487 | 16,450 |
| | A-B | 2,611 | -481 | -390 | -1,191 | -388 | 58 | -216 | 471 | -476 | 0 |
| 북아메리카 | 관측빈도(A) | 834,364 | 39,232 | 36,577 | 10,610 | 8,334 | 27,963 | 6,195 | 10,678 | 2,298 | 976,251 |
| | 기대빈도(B) | 551,077 | 58,849 | 58,556 | 78,441 | 24,921 | 48,819 | 35,948 | 90,739 | 28,900 | 976,251 |
| | A-B | 283,287 | -19,617 | -21,979 | -67,831 | -16,587 | -20,856 | -29,753 | -80,061 | -26,602 | 0 |
| 동유럽 | 관측빈도(A) | 140,734 | 21,414 | 1,251 | 369 | 97 | 17,127 | 2,020 | 4,189 | 55,511 | 242,712 |
| | 기대빈도(B) | 137,007 | 14,631 | 14,558 | 19,502 | 6,196 | 12,137 | 8,937 | 22,559 | 7,185 | 242,712 |
| | A-B | 3,727 | 6,783 | -13,307 | -19,133 | -6,099 | 4,990 | -6,917 | -18,370 | 48,326 | 0 |
| 서유럽 | 관측빈도(A) | 201,484 | 20,086 | 11,923 | 2,315 | 480 | 13,055 | 1,973 | 8,851 | 1,532 | 261,699 |
| | 기대빈도(B) | 147,725 | 15,775 | 15,697 | 21,027 | 6,680 | 13,087 | 9,636 | 24,324 | 7,747 | 261,699 |
| | A-B | 53,759 | 4,311 | -3,774 | -18,712 | -6,200 | -32 | -7,663 | -15,473 | -6,215 | 0 |
| 남유럽 | 관측빈도(A) | 69,580 | 5,810 | 3,384 | 1,182 | 170 | 17,102 | 3,762 | 29,388 | 6,171 | 136,549 |
| | 기대빈도(B) | 77,080 | 8,231 | 8,190 | 10,972 | 3,486 | 6,828 | 5,028 | 12,692 | 4,042 | 136,549 |
| | A-B | -7,500 | -2,421 | -4,806 | -9,790 | -3,316 | 10,274 | -1,266 | 16,696 | 2,129 | 0 |
| 북유럽 | 관측빈도(A) | 38,919 | 10,593 | 2,315 | 256 | 77 | 1,812 | 415 | 417 | 701 | 55,505 |
| | 기대빈도(B) | 31,332 | 3,346 | 3,329 | 4,460 | 1,417 | 2,776 | 2,044 | 5,159 | 1,643 | 55,505 |
| | A-B | 7,587 | 7,247 | -1,014 | -4,204 | -1,340 | -964 | -1,629 | -4,742 | -942 | 0 |
| 중부유럽 | 관측빈도(A) | 119,949 | 6,850 | 6,220 | 833 | 265 | 5,688 | 897 | 1,117 | 2,103 | 143,922 |
| | 기대빈도(B) | 81,242 | 8,676 | 8,633 | 11,564 | 3,674 | 7,197 | 5,300 | 13,377 | 4,261 | 143,922 |
| | A-B | 38,707 | -1,826 | -2,413 | -10,731 | -3,409 | -1,509 | -4,403 | -12,260 | -2,158 | 0 |
| 남아프리카 | 관측빈도(A) | 7,285 | 722 | 135 | 93 | 19 | 1,930 | 290 | 1,790 | 70 | 12,334 |
| | 기대빈도(B) | 6,962 | 743 | 740 | 991 | 315 | 617 | 454 | 1,146 | 365 | 12,334 |
| | A-B | 323 | -21 | -605 | -898 | -296 | 1,313 | -164 | 644 | -295 | 0 |
| 합계 | 관측빈도(A) | 8,708,306 | 929,950 | 925,328 | 1,239,558 | 393,811 | 771,456 | 568,066 | 1,433,884 | 456,692 | 15,427,051 |
| | 기대빈도(B) | 8,708,306 | 929,950 | 925,328 | 1,239,558 | 393,811 | 771,456 | 568,066 | 1,433,884 | 456,692 | 15,427,051 |
| | A-B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주: $\chi^2(112)=2014672.19, p=.000$

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외래관광객 연령대, 방한 목적, 수송수단의 특성을 외래관광객의 거주 국가를 기준으로 분류한 세계권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제곱 검정과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방한 외래관광객의 거주 국가를 기준으로 분류한 세계권역별 외래관광객 연령대, 방한 목적, 수송수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방한 목적별, 수송수단별로 세계권역 간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세계권역별 연령대의 경우, 동유럽·남아메리카·동남아시아는 31~40세 연령대와, 서유럽은 41~50세 연령대와, 북아메리카·오세아니아는 61세 이상 연령대와 각각 서로 가깝게 위치하였다. 그리고 방한 외래관광객의 약 72%를 차지하는 동아시아는 20세 이

하부터 61세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와 전반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세계권역별 방한 목적의 경우에는 중동·동아시아는 여행과, 남유럽·동유럽·남아메리카·동남아시아는 건강, 뷰티, 종교 등의 기타 목적과 각각 서로 가깝게 위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권역별 수송수단의 경우에는 관측빈도 상으로는 모든 권역에서 공통적으로 인천공항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관측빈도와 기대빈도 간의 차이와 각 범주별 관측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세계권역별 수송수단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남유럽은 부산항만과, 남아메리카는 인천공항과, 동유럽·남아시아는 울산항, 군산항, 속초항 등의 기타 항만과 각각 서로 가깝게 위치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는 기타 항만을 제외한 모든 수송수단과 가깝게 위치하였는데, 특히 김해공항, 인천항만, 김포공



〈그림 3〉 '세계권역'과 '수송수단' 범주 점의 결합 도표

항, 인천공항, 제주공항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지난 14년 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의 거주 국가 권역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관광행태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방한 외래관광객의 경험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차원의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한 외래관광객의 세계 권역별 방문목적의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외래관광객의 여행행태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이선영·이지민·전유희·정남호·구철모, 2016; 이희정, 2012; Crott, 2004; Mckercher & Cros, 2003)에서 언급했던 '심리적 거리 이론'과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자국과 문화적으로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할 경우 외래관광객이 지각한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어 방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반면, 심리적 거리를 멀게 인지하는 경우 방문 가능성이 낮아지고 체류일수도 상대적으로 더 짧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Crott, 2004; Shenkar, 2001; Yoo, McKercher & Mena, 2004). 하지만 본 연구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아시아권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와는 지리적으로 멀며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서양문화를 갖고 있는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중동, 중부유럽 권역의 국가들의 여행목적 방문이 동남아시아 권역 국가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교통수단의 발달 및 타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수용력이 증대됨에 따라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지리적, 문화적 거리감은 이제 관광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관광분야에서 심리적 거리 이론의 적용은 좀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인 관광정책 및 관광마케팅 전략의 방

향성은 분명해 보인다. 방한 외래관광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관광행태가 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향후 외래관광객 유치 및 확대 차원에서 외래관광객의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관광정책 및 관광마케팅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실무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방한 외래관광객의 거주 국가 권역별 연령대의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전 세계 권역별 잠재적 외래관광객의 연령대별 맞춤형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방한 외래관광객의 연령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중장년층의 관광상품 선호 유형을 감안한다면, 해당 권역의 중장년층 잠재적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개별적 관광상품을 하나의 포괄적이고 보완적인 형태로 묶은 패키지(package) 상품 기획·개발 및 강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년층은 관광상품 구매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고, 럭셔리 관광상품에 대한 구매의사가 높게 나타난 만큼, 확실적인 패키지 상품을 지양하고 고가의 고품격 관광상품 또는 고가 검진상품과 같은 웰스케어 관광상품 홍보를 통해 해당 권역의 중장년층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 세계권역별 방한 외래관광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방문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의 실현을 위해 권역별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끌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관광의 주된 목적이 여행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유럽, 동유럽,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권역의 방한 외래관광객들이 보인 건강, 뷰티, 종교 등의 기타 목적의 관광행태는 대중관광을 넘어 특수목적관광(special interest tourism)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관광정책결정자와

관광마케터의 입장에서 보면 주목할 만한 특징임이 틀림없다. 특히 다양한 기타 목적의 유형 중 뷰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뷰티관광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며 보건, 의료, 패션 등의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가 용이한 만큼, 남유럽, 동유럽,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권역을 뷰티관광 주요 타깃 시장으로 선정하여 뷰티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방한 외래관광객의 거주 국가 권역별 수송수단의 연관성과 그에 따른 상이성이 명료하게 파악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전 세계권역별 핵심 수송수단 개선을 총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수송수단은 잠재적 외래관광객과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매개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잠재적 외래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유인력의 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잠재적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수송수단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지난 14년 동안 축적된 방한 외래관광객의 통계자료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남유럽은 부산항만을, 남아메리카는 인천공항을, 동유럽과 남아시아는 울산항, 군산항, 속초항 등의 기타항만을 주요 수송수단으로 각각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별로 관광객의 수송수단이 다양하고 주요 거점항만이 다른 만큼, 인천공항 출입국 자료 이외에 국가별 외래관광객의 수송수단을 고려한 국내 주요 항공, 항만 이용 자료를 토대로 수송수단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세분화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권역별 외래관광객의 주요 수송수단 거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해당 거점을 중심으로 항만·공항 정비 및 발전, 여객선의 고속화, 항공편의 대형화, 출입국 편의 향상, 교통수단·도로·운수시설 등 공간적 차원의 이동체계 구축, 언어소통 및 관광정보제공 등

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관광정책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협력 하에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북유럽, 오세아니아, 서유럽 등의 일부 권역들이 다양한 수송수단 중 인천공항에만 두드러지게 밀집된 관광행태를 고려하여 해당 권역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다양한 수송수단 활로 개척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주요국가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과 일본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중국관광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관광수입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은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의 중심축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국제관광산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광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부 특정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난 14년 동안 축적된 방한 외래관광객 통계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외래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과 경험을 얻기 위한 연구로서 의의를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제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실무적 방책을 탐구하는 기초자료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정교해지기 위해서는 방한 목적, 수송수단 등의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항목의 범주가 더욱 다양해져 고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의 영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한 외래관광객 실태자료에서는 방한 목적과 수송수단이 비교적 단순화되어 있어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향후 방한 외래관광객 실태조

사를 토대로 더욱 구체적이고 풍부한 정책적·실무적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규상(2012). 『중동관광 시장세분화 연구』. 미발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권태일·노선희(2014). 외래관광객의 시장특성별 숙박공급방안에 관한 연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8(1), 187-201.

김민정(2011).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여행사 고객관계 관리』, 미발행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김영기·황경호·이기혁(2014). 해외수출영화의 위치화 연구: 수출지역, 영화장르, 판권유형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9(3), 225-252.

김영래·구본기(2012). 외래관광객 이동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 분석: 일본인 재방문관광객의 특성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7(1), 37-53.

김완섭·강미라·류시영(2010).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신희여행상품의 시장세분화. 『관광연구저널』, 24(3), 173-187.

김재원·윤자연(2012). 동남아시아 인바운드 시장의 관광특성연구: 일본, 중국시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여가관광연구』, 20, 51-69.

김홍식·이정섭·김영래(2012). 중국 인바운드 부유층 관광객 지출패턴 결정요인. 『관광연구저널』, 26(2), 399-405.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세종.

박나희·김홍범(2016). 인터넷 검색엔진을 활용한 키워드가 중국관광객 방한 수요에 미치는 영향: 바이두 인덱스 자료를 적용. 『관광학연구』, 40(3), 159-174.

박득희·이계희·김혜선(2015).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방한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개별관광객 간 관광목적지 네트워크에 관한 비

교 연구. 『관광연구저널』, 29(7), 121-133.

박상곤·김상태·한숙영(2010). 방한 외래관광객 체류기간의 결정요인: 유한 혼합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4(3), 261-282.

박세중(2011). 방한 중국관광객의 문화관광행태 결정요인: 문화 대 비문화 관광활동 참여자의 충지출 및 체재기간을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7(4), 107-129.

박소연·이근희·이인혜(2015). 경제변수 및 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한 관광객의 방한 요인분석. 『관광연구저널』, 29(7), 57-72.

박수진·홍장원(2012). 우리나라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8(2), 131-138.

신범철(2013). 동태패널모형에 의한 한국 인바운드 관광수요 분석. 『관광학연구』, 37(1), 103-122.

양승용·오민재(2008). 골프인구에 대한 인식과 내장객 데이터를 이용한 골프인구 추정. 『관광연구저널』, 22(3), 285-300.

오현주·김상혁(2012). 거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적별 외래관광객 수요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5(4), 5-20.

이병찬(2013). 방한 일본인 관광객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관광정책』, 51, 69-74.

이선영·이지민·전유희·정남호·구철모(2016). 잠재적 외래관광객을 위한 한류 관광 정보화 정책: 어권별 니즈와 이슈 분석. 『관광학연구』, 40(2), 11-35.

이유안·김인신(2016). 외래관광객의 관광 주목적 지별 관광지 선택 연관성 규칙분석: 2013년 외래관광객의 휴가, 레저 및 비즈니스 집단별 비교연구. 『관광경영연구』, 20(6), 623-642.

이재곤·김정아·박민희(2016). 방한 중국개별관광객의 여행정보원천과 소비지출액 간의 관계 비교 연구. 『관광경영연구』, 20(3), 83-102.

이정아(2004). 『방한 외래관광객 수요에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방한 미국 및 일본관광객을 중심으로』. 미발행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이희정(2012). 관광지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관광학연구』, 36(10), 105-124.

- 임철수 · 고동우(2015). 외래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 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영향 요인. 『관광학연구』, 39(2), 85-102.
- 한국관광공사(2016). 『2015 외래관광객실태조사』. 강원.
- 허식 · 지은초(2012). Tobit모형을 이용한 방한 외래관광객의 지출결정요인 분석: 주요 관광 시장별 비교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27(5), 305-327.
- 홍미영 · 임은순 · 김순하(2011). 아시아 주요국의 방한수요 변동성 연구: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5(6), 139-157.
- Cai, L., Lehto, X., & O'Leary, J. (2001). Profiling the U.S.-Bound Chinese travelers by purpose of trip. *Journal of Hospitality and Leisure Marketing*, 7(4), 3-16.
- Crotts, J. (2004). The effect of cultural distance on overseas travel behaviours. *Journal of Travel Research*, 43(2), 83-88.
- Hsieh, H., Lang, C., & O'Leary, J. (1997). Modeling the determinants of expenditure for travelers from France,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to Canada. *Journal of International Hospitality, Leisure & Tourism Management*, 1(1), 67-79.
- Jang, S., Bai, B., Hong, G-S., & O'Leary, J. (2004). Understanding travel expenditure patterns: a study of Japanese pleasure travelers to the United States by income level. *Tourism Management*, 25(3), 331-341.
- Kim, S., & Song, H. (1998). Analysis of inbound tourism demand in South Korea: A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approach. *Tourism Analysis*, 3(1), 25-41.
- Koc, E., & Altinay, G. (2007). An analysis of seasonality in monthly per person tourist spending in Turkish inbound tourism from a market segmentation perspective. *Tourism Management*, 28(1), 227-237.
- Laesser, C., & Crouch, G. (2006). Segmenting markets by travel expenditure patterns: the case of international visitors to Australia. *Journal of Travel Research*, 44(4), 397-406.
- Lim, C., & McAleer, M. (2001). Monthly seasonal variations: Asian tourism to Australia.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1), 68-82.
- Lyu, S., & Noh, E. (In Press). Shopping decisions of international tourists to Korea: The Heckman sample selection approach.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 Mariani, M., Buhalis, D., Longhi, C., & Vitouladiti, O. (2014). Managing change in tourism destinations: Key issues and current trends.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and Management*, 2(4), 269-272.
- McKercher, B., & Cros, H. (2003). Testing a cultural tourism typ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5(1), 45-58.
- Shenkar, O. (2001). Cultural distance revisited: Towards a more rigorou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cultural differenc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2(3), 519-535.
- UNWTO(2016). World Tourism Barometer, 4(2). <http://www.e-unwto.org/doi/abs/10.18111/wtobarometereng.2006.4.2.1?journalCode=wtobarometereng>
- Yoo, J., McKercher, B., & Mena, M. (2004).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tr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16(1), 65-77.

2017년 7월 18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7년 8월 8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7년 8월 11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